

텍스트로서의 조경드로잉

- 읽기의 틀과 실제 -

이광빈* · 조정송**

* (주)기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Landscape Drawing as a Text : Practical and Theoretical Approach

Lee, Kwang-Bin* · Cho, Jung-Song**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in Ga-One Landscape Design C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The Landscape drawing is used as main media in landscape design process like the language in daily life for human. Designers input many intentions and meaningful words in design process through landscape drawing. The common purpose of landscape drawing is to represent reality effectively, even though it has variable visual forms and materiality.

The representation in landscape drawing is metaphorical as well as visual and functional. But current tendency is inclined to use landscape drawing in a functional aspect for visual representation and the landscape drawing is utilized straight-forwardly rather than metaphorically for clear communication.

Such recognition on landscape drawing results from the difficulty to accept the symbolic aspect of the drawing. The difficulty makes the utiliz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landscape drawing stay at conventional level in following visible factors. For the sake of solving the difficulty this study considers landscape drawing as the text that contains readable objects and symbolic words. This study presents layer-methods for reading a landscape drawing as a text ; situational and contextual reading, iconological reading and reading the subject of drawing.

Key Words : Landscape Drawing, Text, Interpretation, Visual Language

I. 서론

조경드로잉은 설계과정에서 설계자의 행위와 일치되어 있는 요소이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체에 비해 아직까지 규정적인 용어로 쉽게 서술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경드로잉'이 조경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각적인 매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용어자체의 엄격한 선택에 앞서 조경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행위이며 동시에 결과물인 조경드로잉 안의 많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우선 해결하고자 한다.

조경드로잉은 우리나라 조경설계 분야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설계자의 사고과정인 남긴 흔적으로서의 조경드로잉이며 다른 하나는 공간에 구체화될 실제의 허상으로서의 조경드로잉이다. 후자의 조경드로잉은 전자에 비하여 현실의 공간과의 유사성에 비중을 두고 인간의 시각을 재현하는 투시적, 조감적 시각을 통해 만들어진다. 실제에 가까운 시각을 통한 공간의 재현은 설계자와 사업주체의 거리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설계 작업에도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장점은 조경드로잉의 탐구적, 소통적 기능보다는 재현적 기능에 대한 요구나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조경드로잉은 조경설계 과정에서 설계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설계적 탐구를 위하여 즉각적, 즉흥적으로 구사되므로 후자에 비하여 공식적이기보다는 비공식적이며 형식에 구애됨 없이 설계자와 밀접한 거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시각적 재현보다는 형태의 탐구와 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실체를 재현하는 조경드로잉에 비하여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경우가 많다.

조경드로잉에 대한 최근의 인식은 재현 기능에 그 중심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의 내적 사고 또는 설계자간의 소통을 위한 기능보다는 사업주체와의 의사소통에서 공간을 사실과 가깝게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설계적 탐구나 설계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조경드로잉이 다른 설계과정의 참조물로서 또는 조경작품을 평

가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경드로잉을 왜 텍스트로서 읽으려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조경드로잉을 시각적 참조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탐구적이며 내적인 설계언어로서 조경드로잉을 재조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II. 조경드로잉에 대한 이해

1. 조경드로잉의 정의

드로잉의 형식적 범위는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술분야 드로잉의 형식적 특성을 발자면 페인팅에 상대가 되는 개념으로 점, 선, 면을 표현하는 재료의 바탕 면에 대한 투명성을 가진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¹⁾

조경설계에서의 매체는 제도적인 관례(평면, 입면, 단면도 등의 형식)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러한 관례는 인간의 시각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평면 위에 대상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도적 관례를 엄격히 따르며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설계도는 조경드로잉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구성, 즉흥성이나 즉각성 등의 드로잉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경드로잉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설계자는 일반적 드로잉 범주에 속하는 것 외에도 때때로 3차원 모델을 설계 과정에서 이용하며 여러 재료를 조합하여 평면적인 매체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공간의 특성을 탐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체의 형식을 드로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드로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계과정에 비추어보면 조경드로잉은 개념이나 조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조경드로잉은 설계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고 발전된다. 반면, 형태와 공간이 구체화될수록 설계자와 사업주체와의 의사소통에서 대상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 보여야 하는 상황이 요구된다. 따라서 설계자가 대상을 직접 재현하지 않고

1) Daniel M. Mendelowitz (1976) "The Nature of Drawing," A Guide to Draw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ton: 3-20.

대상을 더욱 정밀하게 재현하는 도구나 기술이 결과물을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감도, 컴퓨터 그래픽 등 설계자의 행위와 독립되어 있고 지극히 시각적 재현 중심의 매체라고 해도 설계자의 의도나 공간에서의 시점과 대상 등으로 규정되는 의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경드로잉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조경드로잉의 재현성

조경드로잉의 의도의 저변에는 설계안을 내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조경드로잉은 본질적으로 재현적²⁾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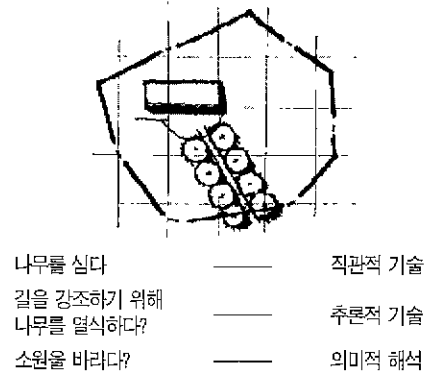
설계 과정에 따라 드로잉의 성격을 보면 설계 과정의 초기에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 재현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며 최종안 단계에 가까울수록 드로잉의 재현적인 성격이 강조된다. 그것은 초기 과정에서는 사과의 구체화를 제한하는 정보가 적고 후기로 갈수록 사의를 형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정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Corner는 재현의 두가지 범주를 상징적인 재현(symbolic representation)과 도구적인 재현(instrumental representation)으로 나누고 있는데, 후자가 실제와 가까운 시각적 재현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전자는 시각적인 재현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상을 통해서 감성적인 면에 호소하고, 음악을 통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재현이다.

따라서 조경드로잉에 있어서 시각적 실체성만으로 드로잉과 실체를 관련시키는 것은 도구적, 기계적 재현 차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재현성에 입각한 조경드로잉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의 이해에 바탕이 되지만 설계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드로잉의 시각적 요소 이면의 상황적, 전체적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경드로잉은 단순히 보는 대상이기보다는 읽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조경드로잉의 텍스트성

일반적인 하나의 문자 텍스트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문장은 그 안에 술어와 술어의 주체가 되는 주어, 대상이 되는 목적어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나는 정원에 나무를 심는다”³⁾ 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드로잉으로 옮겨 보면 그림 1과 같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림 1의 드로잉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일차적인 정보는 “나는 정원에 나무를 심는다”이다.

그림 1. The stage of reading the landscape drawing



드로잉 내의 시각적 기호를 통해 일차적으로 우리는 조경드로잉을 직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앞 문장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장의 골격에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하면 환원되었던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심는다는 것인지, 혹은 ‘무엇을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인지가 그런 것들이다.

조경드로잉의 읽기에서 환원된 요소를 복원하는 작업은 드로잉의 이미지가 가지는 시각적인 것 이상의 것을 읽어 내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림 1의 나무는 “나는 나무를 심는다.”의 구조 내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 ‘그늘을 주기 위한’ 나무 등으로 읽을 수 있는 단

2) James Corner (1992) "Representation and landscape : Drawing and Making the Landscape Medium," 『Word & Image』 8(3) . 256-258.

3)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로서의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 구분하기 위해 굵게 표기했다.

서를 찾음으로써 '나무' 라는 보편적 요소에 덧붙여진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드로잉을 "나는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그들을 만든다."라고 읽고 있다면 드로잉을 대하는 해석자는 직관적 기술에 이어 각 요소들 사이에서 파악되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즉 시각요소에 대한 직관적 기술을 통해 추론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나무를 심는다"라는 문장은 문자 그대로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전체 텍스트의 문맥에 따라서 "나는 '소원'을 바란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질 수도 있다. 조경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차원의 내용들은 드로잉의 가시적인 요소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상징적인 차원의 내용들을 기술하였을지라도 그 내용이 누구에게나 가연성을 얻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조경드로잉이 문자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읽는 방식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상대성이 존재한다는 점, 실체를 기호화된 매체로 대체하는 데 따른 재현의 한계 그리고 드로잉을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의 설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가지 읽기의 층위⁴⁾(Layer)를 통해 조경드로잉이라는 복합적 텍스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을 투영해 볼 수 있다.

III. 조경드로잉 읽기의 틀

앞서의 세 단계-직관적 기술, 추론적 분석, 의미적 해석-에서 직관적 기술이 읽기보다는 인지에 가깝다고 본다면 조경드로잉 읽기는 크게 두 가지 층위의 틀로 볼 수 있다.

설계자 사고의 흔적과 실체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조경드로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층위 중 추론적 분석에 해당하는 맥락적 읽기는 전

자의, 의미적 해석에 해당하는 도상해석적 읽기와 드로잉의 주체읽기는 후자의 입장에서 각각 유용한 읽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조경드로잉 내에 포함된 시각적 요소를 통한 분석차원의 읽기로서 앞서 추론적 분석과 관련된 읽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조경드로잉은 객관적 상황에 대응하는 설계자의 사고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조경드로잉들은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보와 변화요인에 대한 대응, 새로운 정보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체제로 서술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의 틀을 '조경드로잉의 맥락적 읽기'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재현하고자 하는 요소와 재현된 드로잉내의 시각요소의 관계를 읽는 상징적 의미요소 읽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의 층위를 드로잉 내의 시각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조경드로잉을 읽는 '도상해석적 읽기'와 조경드로잉 안의 관찰자와 대상사이의 관계 즉, 시점을 읽는 '드로잉의 주체 읽기'의 두가지 틀로 나누어 조경드로잉 읽기의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조경드로잉의 주체 읽기는 일반적인 제도적 관례(평면도, 입단면도, Axonometric / Isometric)를 따른 드로잉에서는 특정지점의 시각이나 가상의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성이 떨어지나, 실제의 시각에 가깝게 공간을 재현하는 드로잉 읽기 경우에 유효한 드로잉 읽기의 층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층위를 통해 사물을 재현하는 주체와 재현되는 대상과의 관계가 조경드로잉 읽기의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조경드로잉 읽기에 투영되는 층위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읽기, 도상 해석적 읽기, 그리고 드로잉 안의 주체 읽기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각 읽기의 층위에 관해 상술하고, S공장 썬크정원 조경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경드로잉⁵⁾을 대상으로 각 읽기의 층위를 통해 다양한 의미들을

4) 본 연구에서는 조경드로잉 읽기의 틀로서 층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드로잉 내 하나의 시각요소에는 설계자의 다각적인 사고층첩되어 있으므로 시각요소로부터 의미요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틀이 적용된다는 가정을 담고있다고 할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드로잉은 S공장 썬크정원 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드로잉들이다. 이 드로잉들은 1997년 9월에서 10월까지 약 한달간 걸쳐 참여한 설계자들에게 비공식적인 드로잉들에 대한 보존을 요청하여 수집되었으며, 가능한한 이들의 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의 진행은 건축 부문과의 협의, 사업 주체와의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차례 협의에 의해서 설계안의 내용이 조정되었고, 설계안의 조정을 위해서 조정부문의 내부협회가 함께 진행되었다. 썬크 가든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다른 주변여건에 의해 형태가 제약받는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는 정원내 벽천의 형태 등 조형적인 요소가 주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조경드로잉을 통한 설계자간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비교적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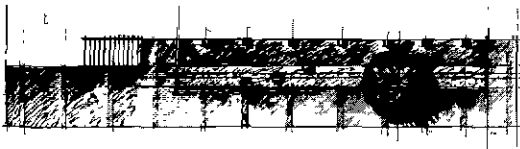
1. 조경드로잉의 맥락적 읽기

조경드로잉의 맥락적 읽기는 하나 이상의 동일한 대상의 텍스트가 가지는 상호관계의 읽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의 과정은 맥락적 읽기에 있어서 읽기의 단서가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시점의 조경드로잉은 시간적으로 전후의 조경드로잉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변화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한 시점의 조경드로잉이 다음 시점의 드로잉과 비교하여 몇몇 시각 요소를 통해 변형되었다는 것은 설계 과정 중 설계자에게 주어진 외부적 현실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설계 대상의 전체를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분에 한정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지는 드로잉이 작성된다(그림 2).

그림 2. A plan for sunken garden



이러한 드로잉을 컨텍스트 드로잉(context drawing)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⁶⁾ 하나의 컨텍스트 드로잉이 다음의 컨텍스트 드로잉으로 진행될 때 여기에는 추가되는 정보나, 중요한 설계자의 선입견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컨텍스트 드로잉의 단계 전이 사이에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정보를 표현하거나 평면이나 입면 상의 일부 형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한 드로잉이 외부적 현실의 변화에 대한 흔적으로서 남게 된다. 이러한 드로잉을 탐구적 드로잉(exploration drawing)⁷⁾이라고 한다.(그림 3).

그림 3. A exploration drawing for design the pond in sunken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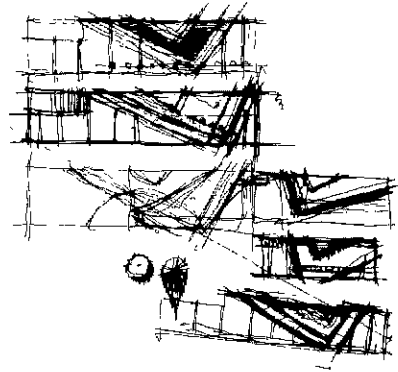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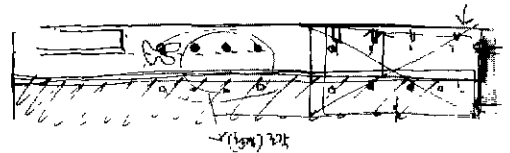


그림 4는 건축 부분과의 협의 중에 작성된 썸큰정원 평면 드로잉의 일부이다. 이 드로잉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의 아래 부분의 빗금과 오른쪽의 X 표시)⁸⁾는 이후에 전개된 설계 과정에서 수반(水畔)이 위치하는 부분으로 이 수반의 위치는 최초의 안으로부터 마지막 안까지 그 위치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A context drawing for the allocation pond



다음 단계의 종합적 드로잉으로 텍스트가 고정되기 이전에 설계자는 몇가지의 드로잉을 작성하였다(그림 5). 하부 전기 시설로 인한 시공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는 전면(全面)에 수반을 설치하고 식당으로부터의 동선을 징검다리로 확보한 설계안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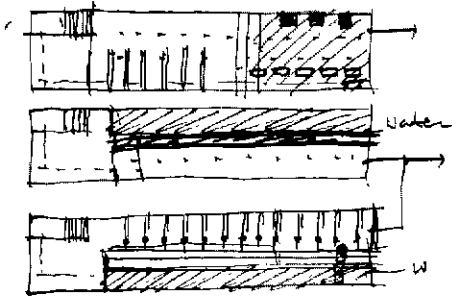
다른 두사람에 의해서 각각 만들어진 드로잉을 통해 살펴보면 썸큰정원 평면, 입면의 변화에는 설계자간의

6) Daniel M. Herbert (1993) Architectural Study Drawing, 진경돈 역 (1995) {건축스터디드로잉}, 서울 : 도서출판 국제 · 112-115.

7) *ibid.*, pp 112-115.

8) X 표시는 이 드로잉만을 보면 어떤 정보를 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 표시는 기존 건축 구조에 증축되는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의 지하에는 전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상부에 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의 표시이다.

그림 5. A Exploration drawing for pond



공간에 대한 선입견적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대상을 다양한 경험을 재현하는 화면(畫面)으로서 보는 입장(그림 3)과 대상 공간을 건축의 연장(延長)으로 보는 입장(그림 5)사이에서 입면 및 평면의 형태의 진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그림 6. A plan in the presentation to cl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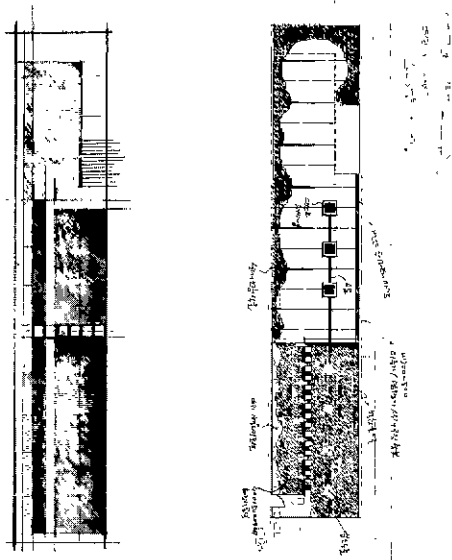


그림 6, 7은 탐구 드로잉을 바탕으로 구성된 입면 드로잉으로 벽면의 수직적인 요소를 떨어지는 물의 패턴(위)을 통해 하나의 입장을 충족시키고, 벽면을 가로지르는 수로형 벽천을 통해서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려고 있다. 해석자는 조경드로잉의 맥락적 읽기를 통해서

컨텍스트 드로잉과 탐구적 드로잉의 순환적 기제를 분석함으로써 단일 텍스트에서 얻을 수 없는 외적 현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설계적 대응방식의 추이를 읽을 수 있다. 또, 컨텍스트 드로잉과 탐구적 드로잉의 면밀한 읽기는 외부적인 변화와 대응뿐만 아니라 설계자가 공간에 대하여 설정한 선입견적 상황이 설계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A context drawing for the elevation of sunken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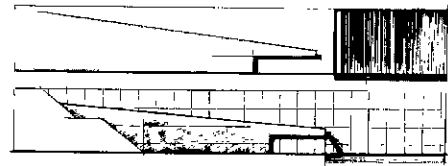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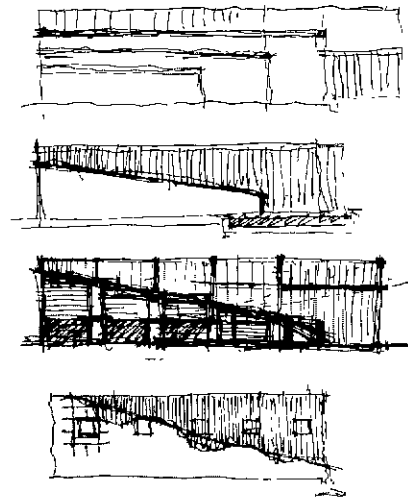


그림 8. A exploration drawing for the elevation of sunken garden



2. 도상해석⁹⁾적 조경드로잉 읽기

순수 예술 분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예술 작품을 해석의 대상으로 보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미술의 역사를 양식

9) Erwin Panofsky(1995) "Ikonographie und Ikonologie." Meaning in the Visual Arts, 이한순 외 (1997) "도상학과 도상 해석학," {도상학과 도상 해석 학} 서울 : 사계절 출판사 ; 139.

의 변천과 동일시하여 개별 작품이 가지는 ‘의미’의 차원을 간과하게 된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조형 예술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¹⁰⁾

현상 의미(Ph nomensinn)는 우리가 겪는 존재에 대한 감각을 통한 체험. 즉 감각 기능을 거쳐서 수용되는 일차적인 의미 단계이다. 현상 의미는 다시 사실 의미(Sachsinn)와 표현 의미(Ausdruckssinn)로 나뉜다. 그 예로 우리가 어떤 조형 기호를 인식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을 그려내는 것인지(사실 의미), 또는 ‘잘 생긴,’ ‘못 생긴,’ ‘슬픔에 잠긴,’ ‘기쁨에 차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인지(표현 의미)는 분명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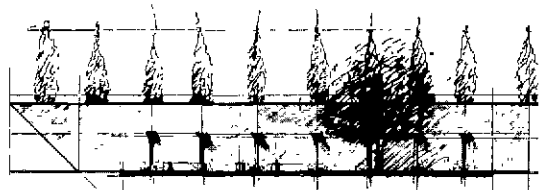
그 다음의 이차적 의미의 단계는 문헌 기록 등의 형식을 통한 정보를 얻고 나서야 접근이 가능한 주제 의미(Bedeutungssinn)이다. 주제 의미는 사물을 바라보는 해석자의 방식이 개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의미로, 작품의 역사적 위치나 상징 체계 등을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상의 사실 의미나 표현 의미가 직관적인 기술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는 반면, 주제 의미는 작품의 주변적 현실과 작가의 심리, 작품 제작 당시 풍미하던 철학의 사조 등이 작품의 해석을 위한 도구에 포함되어 해석자의 시각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림 9에서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나무, 벽, 물 등은 사실 의미에 해당한다. 여기서, 나무의 형태로 칩엽수, 활엽수가 판단되었다면 그러한 의미는 표현 의미에 해당한다.

주제 의미는 이러한 현상 의미를 바탕으로 한 도상학적 유형화의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읽기의 내용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드로잉을 읽는 수용자가 다른 조경드로잉들, 예술 작품에서 표현된 나무들 또는 대중매체 안의 나무 이미지를 통한 유형적 지식에 의해서 뒷쪽의 칩엽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중앙의 나무가 “넓은 그늘을 제공하고, 사계절 다른 분위기를 주기 위한 수목”이며, 이렇게 “다른 설계 요소를 배경으로 하는 단독 수목의 배치는 우리 나라의 마을 입구에서 주

로 나타나는 정자목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서술한다면 이것은 도상 해석학적 읽기를 통해 얻은 주제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The category of meaning in iconological reading



사실 의미	나무, 떨어지는 물, 출수구
표현 의미	중앙 오른쪽의 음영을 위한 칩엽수
주제 의미	동네의 정자목의 정서를 재현

3. 드로잉 안의 주제 읽기

조경드로잉이 재현하고자 하는 실제와 드로잉 사이에는 설계자 또는 드로잉의 작자가 존재하고 있다. 모더니즘의 미술사를 재현되는 것과 재현하고 있는 것의 관계로 서술하고 있는 드러커(Johanna Drucker)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주체와 이미지를 읽는 수용자의 관계를 이미지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이미지를 사회적, 문화적 상징 또는 재현의 구조가 함축된 언어의 발화(enunciation)에 비유하여 이해하였다.¹¹⁾

드러커는 이미지를 그리는 화가와 이미지에 숨어있는 시각의 주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벨라스케스(Velazquez)에 의해 재현된 “시녀들(Las Meninas)”이라는 그림에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군주의 존재와 시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벨라스케스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황이 군주의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각적인 재현 차원에서 이 그림은 투시적 공간에

10) *ibid.* pp. 115-117.

11) Johanna Drucker (1994) *Theorizing Modernism : Visual Art and the Critical Tradi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08-112. 141-146.

정밀하게 재현된 방과 인물들에 불과하지만 드러커의 논의에 따라 읽는 이미지의 이면에는 이미지와 대상의 재현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관계의 재현이라는 층위가 중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0. Velazquez(1656) "Las Meninas" (Mitchel, 128)



해석자가 조경드로잉을 텍스트로서 대할 때 겪는 어려움은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재현된 드로잉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이 설계자와 매체의 제작자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기술적(記述的) 텍스트에서 지시적인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할 때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그러한 기술적인 텍스트라 할지라도 그 텍스트는 예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술과정에는 발화의 주체와 발화된 주체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경 설계 과정의 의사 소통을 예술 행위로 보는 읽기의 방법은 고전시대의 시각적 재현을 목적으로 한 드로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경사 안의 예를 들면, 베르사유를 재현하는 많은 회화들은 건축물로부터 뻗은 길을 통해 형성되는 비스타를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의 지배는 당시의 설계자인 르 노트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 절대적 힘을 가진 사업 주체인 왕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조망이 이 거대한 정원을 설계하고 평면에 재현해 보는데 있어서의 주된 시각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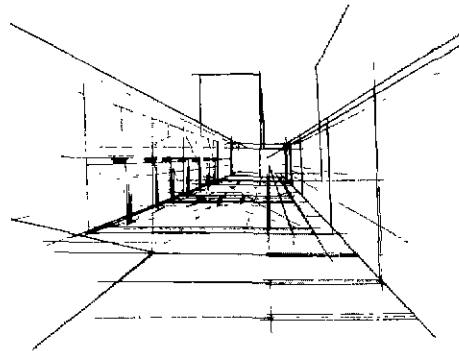
썬큰정원 설계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발화된 주체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발화된 주체의 위치가 몇

몇 공간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경드로잉을 통해 구조화되는 이미지의 주체의 시각은 모두 직원 식당 내부에서 썬큰정원의 벽천 쪽으로, 계단부로부터 썬큰정원으로, 임원 식당으로부터 썬큰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썬큰정원을 시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의 가치가 세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림 11. The elevation of sunken garden



그림 12. The perspective from steps



발화의 주체가 되는 조경 설계자, 건축 설계자 모두 기존 설계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조감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드로잉의 형식에 비하여 썬큰정원의 입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은 썬큰정원의 벽천 요소가 평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원 식당을 통해 보여지는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2).

조경드로잉에서 설계자에 의해 발화된 주체는 역사적 사실에서처럼 설계인의 의사 결정권을 갖는 주체에 주로 맞추어져 있는데, 공공(公共)을 위한 공원의 설계 과정에서 조감도를 이용하여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인간적 가치에서 어느정도 유리되어 공원의 공공성을 대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시각이 설계자에 의해 발화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V. 결 론

아직까지 조경드로잉은 그 형식이나 정의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적 가치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조경설계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경설계 분야에서 조경드로잉을 바라보고 이용하는 주된 경향은 첫째, 조경드로잉은 공간이나 대상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과 둘째, 조경드로잉은 의사소통의 명확함을 위해서 은유적인 방법보다는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경드로잉에 대한 인식은 과거 또는 동시대의 조경설계의 선례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설계 작품의 의미적인 차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리적인 요소만을 답습하여 결국 형태적인 차용에 머무르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잘 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조경드로잉을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의미를 지닌 것, 읽고 해석할 만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경드로잉이 설계자가 가지는 공간에 대한 생각과 의도를 외부에 표현하는 텍스트와 같은 매체라는 가정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에 의하면 조경드로잉은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과 함께 설계과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설계자가 공간에 부여하려는 의미와 의도를 담고 최종의 안에까지 그 의미와 의도를 구현해나가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담는 어휘로 이루어진 조경드로잉을 하나의 텍스트로 접근하여 조경드로잉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의미와 의도를 읽어내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본 연구의 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경드로잉이 텍스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을 일반적인 텍스트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구조와 조경드로잉이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유추하고 있다. 또, 조경드로잉 읽기에 있어서 텍스트에 포함된 의미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관적 기술, 추론적 분석, 의미적 해석의 단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의미해석의 단계를 바탕으로 설계자 사고의 혼적으로서의 조경드로잉과 실재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조경드로잉이라는 두 측면에 모두 유효한 읽기의 층위 -조경드로잉의 맥락적 읽기, 조경드로잉의 도상 해석적 읽기와 조경드로잉의 주체 읽기- 를 이끌어내고 있다. 조경드로잉의 맥락적 읽기는 의미해석의 단계상 추론적 분석에 해당하는 읽기의 방법으로 일련의 조경드로잉의 변화를 통해 설계과정의 흐름을 추론할 수 있다. 조경드로잉의 도상해석적 읽기와 주체읽기는 의미적 해석에 해당하는 읽기의 방법으로서 시각적 재현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경드로잉에 대한 층 깊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 요소들을 읽어내려 하는 노력에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S 공장의 썸네링의 설계 과정에서 그려진 드로잉들을 대상으로 읽기의 층위들을 적용함으로써 읽기의 방법론이 현실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인용문헌

1. 배정현(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p. 94.
2. 윤천근 외(1996) 건축입면표현을 위한 시각감응언어의 특성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12(10): 133-144.
3. 川野 洋(1982) 藝術情報誌. 지중권 역(1992) 예술정보 기호. 서울: 새길. p. 62.
4. Baudrillard, Jean(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1993)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pp.3-15.
5. Betti, Claudia & Teel Sale(1980) Drawing : A Contemporary Approa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3-18
6. Bleicher, Josef(1980) Contemporary Hermeneutics. Hermeneutics as Method. Philosophy and Critique. 권순홍 역(1983) 현대해석학 방법. 철학. 비판으로서의 해석학. 서울: 한마당. p. 19.
7. Byrd, Warren & Nelson, Susan(1985) On Drawing. Landscape Architecture. July/August : 45.
8. Cheat, Bernard(1970) The Art of Drawing.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9. Corner, James(1991) A Discourse on Theory II : Three Tyrannies of Contemporary Theory and the Alternative of Hermeneutics Landscape Journal 10(2) : 115-133.
10. _____ (1992) Representation and Landscape : Drawing and Making the Landscape Medium Word & Image. 8(3) : 243-275.

11. _____ (1993) Projection and Disclosure in Drawing. Landscape Architecture.
12. Crandell, Gina(1993) Nature Pictorialized -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3. Descargues, Pierre(1976) Perspective.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4. Drucker, Johanna(1994) Theorizing Modernism : Visual Art and The Critical Tradi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41-145.
15. Eco.Umberto(1988) A Theory of Semiotics. Herman Parret(1989) La Smiotique : Tendances Actuelles et Perspectives 김성도 역(1995) 현대 기호학의 흐름. 서울 : 이론과 실천. p. 16.
16. Gadamer, Hans-Georg(1960) Wahrheit und Method. Josef Bleicher(1980) Contemporary Hermeneutics. Hermeneutics as Method. Philosophy and Critique. 권순홍 역(1983) 현대해석학 방법. 철학. 비판으로서의 해석학. 서울 한파당. p. 125.
17. Goldstein, Nathan(1976) Figure Drawing : the Structure Anatomy and Expressive Design of Human Form.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8. _____ (1977) The Art of Responsive Drawing.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 Hartley, John와(1985)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 박명진 편(1989) 비판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 기본개념과 용어. 서울 : 나남.
20. Herbert, Daniel M.(1993) Architectural Study Drawing. 진경돈 역(1995) 건축스터디 드로잉. 서울 : 도서출판 국제. p. 93. pp. 112-115.
21. Jellicoe, Geoffrey & Susan (1995) Landscape of Man : Shaping The Environment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 Day (3rd ed). New York : Thames and Hudson. p. 113.
22. Mendelowitz, Daniel M.(1976) The Nature of Drawing. A Guide to Drawing.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ton. pp. 3-20.
23. Mitchell, William J. (1992) The Reconfigured Eye: Visual Truth in the Post Photographic era. 김은조 역 (1997) 디지털 이미지론 서울·아이비스 p.32
24. Moore, Kathryn(1991) Toward Creative Landscape Design. Landscape Design. June 1991.
25. Pai, Hyungmin(1993) From the Portfolio to the Diagram : Architectural Discours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iscipline of Architecture in America. 1918-1943 Thesis (doctoral)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5-17. 국문 요약.
26. Panofsky, Erwin(1995) Iconographie und Ikonologie. Meaning in the Visual Arts. 이한순 외역(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 사계절 출판사 pp. 115-117. p. 139
27. Parkin, Sara(1997) To Infinity and Beyond Landscape Design. no. 266 : 8-22.
28. Parret, Herman(1989) La Smiotique : Tendances Actuelles et Perspectives. 김성도역(1995) 현대 기호학의 흐름. 서울 : 이론과 실천. p.16. p 26.
29. Perez-Gomez, Alberto & Louise Pelletier(1993)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Beyond Perpectivism. Perspecta 27.
30. Rykels, Brenda(1993) Landscape Design Graphics: Envisioning New Values. Georgia Landscape. 1993 · 16-17.
31. Sullivan, Chup(1995) Drawing The Landscap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p.185. p.211. p. 228. p. 231. p. 243.
32. Toney, Anthony(1966) Creative Painting and Drawing. New York : Dover Publication. Inc.
33. Zambonini, Giuseppe (___) Representation and/or the Making of Form In Robert Millereds. Implementing Architecture. Atlanta : The Architecture Society of Atlanta Nexus Press.